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1월 7일(첫째 주, 새해예배)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인도:김성진 집사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앙	다 함께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64장)	다 함께
*교독문	94번	다 함께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550장)	다 함께
기도		하재혁 집사
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552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 예수: 8.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요한복음 9장 4절)		
*찬송	어둔 밤 쉬 되리니(330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목요일 새벽기도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14일) 합니다.

-2017년 현금 영수증 필요한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읽을 성경: 시편 87-93편, 요한계시록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묵상

내 유일한 몫이 되신 내 예수여!

하고많은 이들이 제각기 제 몫을 애기하고 셴합니다. 저도 저의 몫을 애기하고 온 기쁨으로 헤아려 보렵니다. 그들의 몫을 결코, 정말 결코 내 몫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 잃더라도 다 빼앗기더라도 내 몫 만은 진정한 내 몫 만은 간직하고 셴습니다.

그러기에 어리석게 이런저런 것에 매여 기도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어리석게 이런저런 일에 분요 하게 매달려 살고 싶지 않았고요. 하나님, 지금은 사랑과 공홀로 아버지 되어 주신 그분이 주신 내 몫에 매여서 행복스럽게 살고 셴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저물어 또 새해가 온다 해도 이 내 몫 외엔 더 가지고 셴은 것 없었습니다. 내 몫인 그분이 안타까워하실 때는 난 내 몫이 그분이기에 일어나서 밤중이라도 나의 길을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이 괴로워함 속에 내 몫은 괴로움 외엔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일어서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면 내 몫이 그분이기에 그분께로 가려고 다짐해 봅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성, 그것도 알고 보면 엘리야의 몫이 아닙니다. 어찌면 온 세상이 무관심한 그곳에서 그는 벌써 놀라운 보배인 양 그의 몫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붙들고 서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몫이 아닌 일시적인 이런저런 것에 매일 때는 다윗 그도 정말 가치 없어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2 장 말씀의 “나를 중히 여기는 그를 나도 중히 여기고…”라고 하신 것처럼 참된 자기 몫을 붙든 그자가 주님께도 그리고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도 소중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므로

이미경

주님!
산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바다가 흥흥하고 넘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주님 안에
안연히 거할 것입니다.
내가 정녕 평강 속에 거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므로
주님께서 지키시며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실 분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새해도 세상은
여전히 빛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길 가립니다.

땅 끝에서

박수호

주님이 언제나 부르시는 자리
그곳은 땅 끝이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만나주시는 곳
그곳도 언제나 땅 끝이었습니다.

나로서 서고자 했던
지난날의 가슴 아픈
모든 수고와 슬픔들 ...
그것은 땅 끝의 참된 의미를
모른 까닭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땅 끝에 선 자의 고백은
내 주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고 싶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1월 7일(1주) 32권-1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